

2023.01.-2023.12.

WANJU CULTURA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문화원탄생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1	완주문화원탁회의	
	완주문화원탁회의	6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9
	_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10
	_ 장애인문화예술	17
	_ 문화기획자·활동가	27
	_ 문화예술 성평등(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37
	_ 주민 제안 주제	49
	_ 공유·교류 원탁회의 5	49

2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기록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57
	_ 하나의 완주를 위한 100개의 목소리	
	장애인문화예술	63
	_ 우리의 만남이 피워내는 장애문화예술의 꽃	
	문화기획자·활동가	69
	_ 더 깊고, 더 넓게 : 문화기획·활동을 위한 성찰과 모색	
	문화예술 성평등	75
	_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헤엄칠 수 있는 힘	
	문화예술 성평등	82
	_ 지금의 발걸음으로 만드는 내일의 우리	
	공유·교류 원탁회의	87
	_ 이어지는 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힘	

3	부록	
	완주문화예술 정책·사업제안서	94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주민 제안 보고서	103

1

완주문화원탁회의?

2021년부터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주문화원탁회의'는 문화예술현장 관계자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완주군 문화예술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 2023년에는 장애인문화예술, 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 성평등, 주민제안 주제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완주문화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 거버넌스 주체를 발굴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 문화예술 현장 관계자 중심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완주문화 예술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제별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 활동 추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직접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갑니다.**

- 정책과제별 원탁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 원탁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재단 사업, 완주군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문화자치 실현 방안 모색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논의목적

- 문화정책발굴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주민의견 청취
- 지역별·분야별 문화예술 현안 및 정책과제 발굴

행 사 명 2023 문화현답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운영일시 2023. 3. 17.(금) 14:00 ~ 15:30

장 소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실

참석인원 총 86명(완주군수, 완주군민 65명, 완주군·완주문화재단 관계자 20명)

내 용

- 완주군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추진계획 공유
-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주민,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제안의견 총 64건 (문화예술 24, 역사문화 6, 관광(생태) 24, 체육 8, 기타 8)

분야	주제	제안 내용
문화 예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예술 산업화	· 문화예술 산업 지원 방안 마련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 문화예술인 인건비 현실화
	문화예술행정 전문화	·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 · 문화예술사업 기획 시 전문예술인 참여 확대
	예술인 지원	· 전문예술인·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문화예술 향유	· 문화예술기관시설 및 프로그램 예산 확대
		· 전문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	· 완주 한지 복원 및 활성화
문화예술시설 정비	· 안전시설 확충	
역사 문화	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	· 지역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기록
		· 문화재 관리 체계화
관광	관광지 정비	· 관광시설 확충 · 관광지 환경 조성
	관광자원 개발	·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체험특화마을 조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축제 주민 참여 확대 ·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두레 선정 기업 연계·지원 · 기업가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지원계획 마련
	교통 인프라 구축	· 주요관광지 및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생태 보호	· 만경강 철새 보호 방안 마련
체육	체육 인프라 확충	·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조성 · 대회 유치 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조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추진(국비)
기타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 완주군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근무환경 개선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완주만의 정책 도입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_2023 문화현답 '완주군민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문화원탁회의 :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2023 문화현답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2023년 3월 17일 @삼례문화예술촌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민이 말하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해요!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산업화 체계 마련
-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 문화예술행정 전문화
- 문화예술시설 정비 및 향유 지원
-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이 소개하다 : 완주군정 현황 · 계획

문화·예술	관광·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문화재단 운영 · 문화도시 지원 · 삼례예술촌, 쉬어가삼[레:] 운영 · 문화예술 단체 프로그램 운영 · 완주 역사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개소 · 지역 관광자원 활용 축제 · 주요 관광 인프라 확충 · 체육복지 시설 및 대회 지원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민이 말하다 #역사·문화

지역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확산시켜요!

- 삼례 동학운동 및 근대역사문화자원
- 봉동읍 구암리 경허대선사
- 경천면 봉수대와 성곽
- 고산향교
- 구 삼례양수장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민이 말하다
#관광·체육

관광·생태·체육, 모두 즐길 수 있는 완주를 위해!

- 관광지 정비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교통 인프라 구축
- 생태 보호
- 체육 인프라 확충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완주군의 정책이 된다고?

완주의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와 사업, 정책 등을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완주군수가 답하는 대담의 장,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민이 말하다
#그리고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해보아요 

 완주군 외곽지역의 대중교통이 확충되어야 해요

장애인 문화예술

논의목적

- 2020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1년 12월 제정된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
-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조사에서 발굴된 정책과제의 사업화 추진
- 완주군 장애인 지원기관·시설·단체 등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체계 활성화

운영기간 2023. 7. ~ 12.

운영횟수 총 13회(개별간담회 8회, 원탁회의 3회, 사례답사 1회, 장애인문화예술축제 1회)

장 소 완주군 일원

참여기관·시설·단체 :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8곳

- 늘푸른그룹홈, 문화공동체 아리아리(한사랑),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내 용

- 202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 기획·운영
- 2023 제1회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진행 및 장애인문화예술 모바일 매거진 창간호 준비

1.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개별간담회

기 간 2023. 7. 10.(월) ~ 7. 24.(월)

장 소 완주군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사무실

참여인원 총 25명

참여기관·시설·단체 (총 8개)

- 늘푸른그룹홈, 문화공동체 아리아리(한사랑),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주요내용

- 기관·시설·단체별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유
- 2023 활동 주제 협의 :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과제 논의, 협력사업 모색

2.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

운영기간 2023. 8. ~ 12.

참여인원 8개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관계자 25명

운영횟수 3회

원탁회의 세부 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여인원	내용
1차 원탁회의	2023.8.3.(목) 14:00~16: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9명	. 기관, 시설, 단체별 문화예술 활동 내용 공유 . 개별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협력사업 운영 계획 논의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모바일 매거진 제작 등
2차 원탁회의	2023.9.27.(수) 10:00~12: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8명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운영 계획 논의 : 행사명, 일정, 장소, 세부 프로그램 협의 등
3차 원탁회의	2023.12.1.(금) 10:00~12: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8명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운영 평가 . 장애인문화예술 모바일 매거진 창간호 기획 및 발행일정 등 협의

3. 장애인 문화예술 협력사업 사례답사

일 시 2023. 9. 1.(금) 09:00 ~ 20:00

장 소 청와대 춘추관 일원

참여인원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관계자 및 장애인문화예술인 10명

운영횟수 1회

주요내용

-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 개막식, 춘추관 특별전, 행사 부스 등 축제 현장답사

4.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최

행사명 2023 제1회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슬로건 우리, 서로, 함께

기간 2023. 11. 1.(수) ~ 11. 5.(일)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 놀이터, 누에아트홀 3전시실

참여인원 1,052명

운영횟수 1회

내용

- 개막식, 문화제(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영상 상영), 전시회(장애문화예술인 공예, 회화, 사진, 문학 등 작품 전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체험 부스

공동주최·주관

- 늘푸른그룹홈,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연계)

세부내용

- 개막식 및 문화제 ‘함께’

· 일 시 : 2023. 11. 1.(수) 13:00 ~ 16:00

·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 놀이터

개막식 및 공연·상영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참여장애문화예술인
13:00 ~ 13:10	축하공연	임실필봉농악	노상신, 양단영, 하구은, 하구혜, 하다속, 하민음, 허은지
13:10 ~ 13:20	개막식	함께 여는 축제의 시작	
13:20 ~ 13:35	무용·댄스	흥해라, 님과 함께	김정애, 김정임, 김현숙, 김호연, 노정순, 박건태, 박준호, 박현진, 소현정, 손수민, 유태조, 최명자
13:35 ~ 13:50	영상	하니, 미니의 시 읽어주는 여자 베버의 시 읽어주는 남자	아리아리 (황수정, 신경순, 전건우 외)
13:50 ~ 14:05	무용·댄스	반달, 순정	강승현, 김시은, 박서희, 박순임, 송인애, 양지수, 유도담, 유제민, 이영미, 이정일, 이진혁, 이현준, 장도현, 정미자
14:05 ~ 14:15	영상	하니의 첫사랑(뮤직비디오)	아리아리 (황수정 외)
14:15 ~ 14:30	피아노	THE TOLLING BELL Op.125 No.8(Stephen Heller) I'd rather have Jesus	하구은
14:30 ~ 14:45	합창	고향의 봄 외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15:00 ~ 16:00	전시	전시 개막식 : 갤러리 투어 (작가와의 대화)	전시 참여 작가

부대행사		
운영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3:00 ~ 16:00	반려화분 만들기	넙킨공예로 화분 장식하고 식물심기
	비누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다 함께 시작하는 인권의 봄	장애인 인권 캠페인
	책갈피 만들기	수어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천연염색·머그컵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및 머그컵 만들기
	커피와 차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베트남 차 문화 체험

- 전시 ‘서로’

· 기 간 : 2023. 11. 1.(수) ~ 11. 5.(일)

·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제3전시실

장르	참여작가
공예	김남철, 김상봉, 김재이, 남동희, 노성만, 문성진, 박정운, 신경순, 양단영, 유연주, 이오순, 정우상, 정재훈, 정호연, 최병식, 최재은, 최정윤, 최판석, 하구은, 한경희, 황은혜
문학	김군자, 김명숙, 박양례, 배춘자, 양혜정, 오순례, 윤웅민, 이연수, 이정숙, 이정순, 장옥자, 정근이, 정금옥, 장양관, 정용탁, 조정자, 한 솔, 허종단, 홍채연
회화	김수정, 김재이, 모나미, 양단영, 유연주, 윤해란, 이인자, 이현준, 이혜순, 정연아, 하구은, 하구혜, 하다속, 하민음, 허은지, 홍귀범
사진	김철호, 배상철, 우덕용, 이회성, 최병익, 최정호

운영결과

- 공연 프로그램 : 5개(음악 3, 댄스 2)

- 영상 상영 : 5편

- 전시 : 총 112점(공예·원예 43, 회화 31, 사진 13, 문학 25)

- 공연 및 전시 출품 장애문화예술인 수 : 89명

- 참여인원 : 총 1,052명(개막식 및 문화제 261명, 부대행사 343명, 전시 448명)

5. 장애인 문화예술 모바일 매거진 제작 준비

기간 20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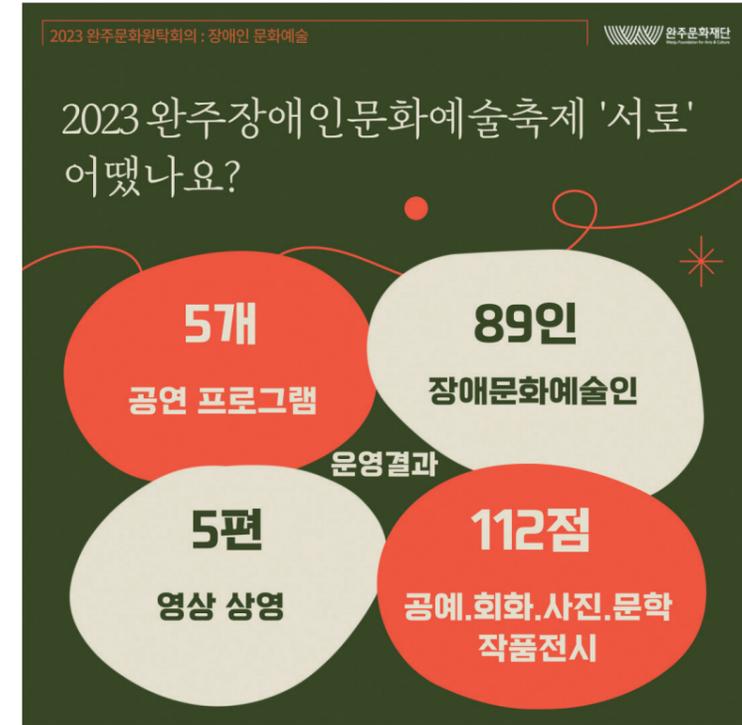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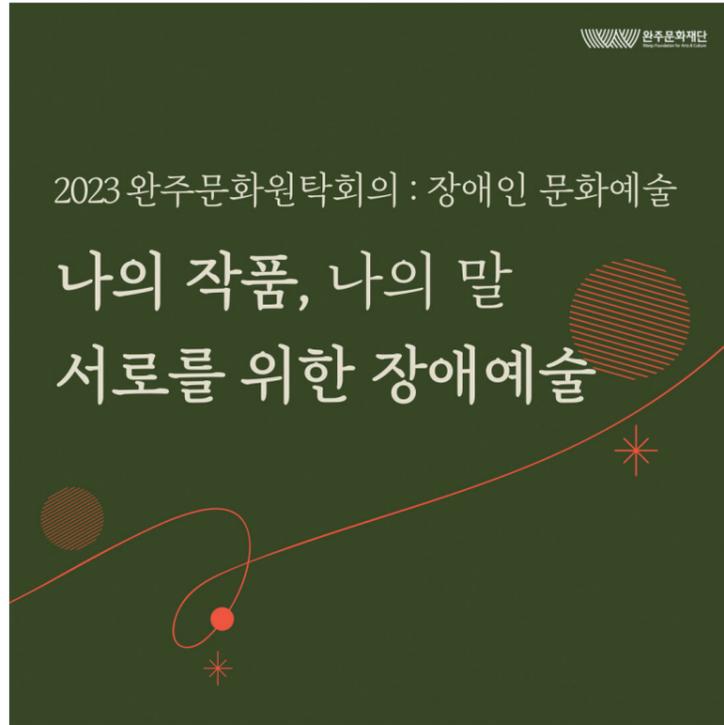
발행시기 2024년 1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5시(월 1회 발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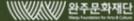
- 지역 내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장애문화예술인 인터뷰 및 작품 소개, 문화예술프로그램 안내 등

장애인문화예술

_나의 작품, 나의 말 서로를 위한 장애예술



-
-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이런 점이 좋았어요 #1
-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었어요”
 - “재밌어요, '좋아요' 라고 말하며 현장을 즐겼어요”
 - “휠체어 이동 동선으로 참여가 용이했어요”
 - “당사자들의 작품들이 전시·상영되어 좋았어요”
 - “‘작가님’이라는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이런 점이 좋았어요 #2

-  "가족들이 참여해 자신의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  "내가 노동한 것에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  "LED화면을 통해 수어통역과 영상이 잘 보였어요"
-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이런 점을 보완해나가요

-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보아요"
-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했으면 해요"
-  "지속적인 회의·업무 배분으로 미리 축제를 준비해요"
-  "작품 도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다른 참여자들의 공연을 끝까지 지켜보는 배려가 필요해요"
-  "공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주세요"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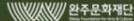
장애인 문화예술 매거진 '서로' 창간호를 준비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과 지원 기관·단체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지속성있는 매체



- 작가 인터뷰·작품활동에 대한 이야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후기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대학 생활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실릴 거예요.)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완주문화원탁회의

2021년부터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주문화원탁회의'는 문화예술현장 관계자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만나 완주군 문화예술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새정부 110대 정책과제 중 '장애예술활성화',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을 중심으로 모인 원탁회의입니다. 2023년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개최, 장애인문화예술매거진 '서로' 제작 준비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늘푸른 그룹홈,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아리아리공동체)

문화기획자·활동가

논의목적

- 지역 내 문화예술 현장 관계자 중심의 완주문화예술 정책 및 과제 발굴
- 문화기획자·활동가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기간 2023. 6. ~ 12.

운영횟수 총 6회(전체 네트워크 모임 2회, 네트워크 소모임 4회)

장 소 완주군 일원

참 여 자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총 10명)

내 용

- 논의 모듬 구성 : 참여자 의견에 따른 논의 주제 선정 및 모듬 구성
- 모듬별 논의 : 주제별 정책 및 사업 제안 과제 논의, 정책(사업) 제안서 작성
- 논의 결과 공유 : 모듬별 논의 결과 공유 및 연계·협력사업 제안 등

1.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모임

(1) 전체 네트워크 모임

운영기간 2023. 6.~ 12.

운영횟수 2회

주요내용 원탁회의 참여자 활동 및 완주군 문화예술 현장 이슈 공유, 원탁회의 운영 방향 협의
2023년 활동 평가

상반기 네트워크 모임 세부 내용

- 일 시 : 2023. 6. 30.(금) 09:30~11:30
-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인원 : 8명
- 내 용 : 참여자 상호교류 및 2023 원탁회의 활동 방향 협의, 네트워크 소모임 구성, 논의 주제 선정, 주제별 논의 방향 협의

하반기 네트워크 모임 세부 내용

- 일 시 : 2023. 12. 18.(월) 09:30~11:30
- 장 소 : 어울림 카페
- 참여인원 : 5명
- 내 용 : 네트워크 소모임 논의 결과 공유 (1모듬 : 완주형 정성적 평가 문항 마련, 2모듬 :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정책 제안), 2023년 활동 평가

(2) 네트워크 소모임

운영기간 2023. 7.~ 11.

운영횟수 4회

주요내용 원탁회의 참여자 상호 활동 공유, 주제별 정책 및 사업 제안 논의

네트워크 소모임 세부 내용

주제	일시 및 장소	참여인원	내용
완주형 문화예술 정성적 평가지표	2023.7.18.(화) 10:00~12: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4명	· 참여자 활동 공유 · 문화예술 활동 평가 설문 방식의 한계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 항목 논의
	2023.9.20.(수) 10:00~12: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4명	· 참여자 활동 공유 · 문화예술 활동 정성적 평가지 테스트 버전 및 정책제안서 작성
문화예술 창업	2023.11.10.(금) 19:00~21:00 고산 청춘방앗간	4명	· 참여자 활동 공유 · 문화예술 분야(창작, 창업, 공동체 등)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2023.11.13.(월) 19:00~21:00 어울림카페	3명	· 참여자 활동 공유 · 문화예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사항 논의 및 제안서 내용 정리

2.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주요 내용

완주형 정성적 평가문항 마련

-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천편일률적인 문항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량 설문과 병행하여 더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정성평가 질문 마련. 이러한 정성평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자(강사 등)와 참여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함

∴ 세부 질문 문항

교통편

: 대중교통을 통해 지역을 왕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노력에 대한 정도를 조사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욕구를 짐작해 볼 수 있음

당신이 해내야 했던 일

: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빠르게 처리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문화예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임

오늘의 경험을 판단하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 완주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이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 가격이 적다고 해서 만족도 역시 적은 것은 아님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도를 재화를 통해 수치로 나타내보는 시도를 담은 문항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전과 후의 나는?

오늘 함께한 경험으로 앞으로의 나는?

: 개인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화예술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문항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음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정책 제안

- 완주군에서 문화예술 창업을 해서 실질적인 독립을 하는 경우는 드뭄. 대부분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일을 하면서 본인의 공간을 유지함. 때문에 창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역 내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완주군 안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문화예술 창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과정이 더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제안 내용

건강한 문화지원 생태계 조성

: 금액별, 기간별, 연차별 쿼터제 도입 검토 필요. 쿼터제 도입 이전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 지역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수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무정산 방식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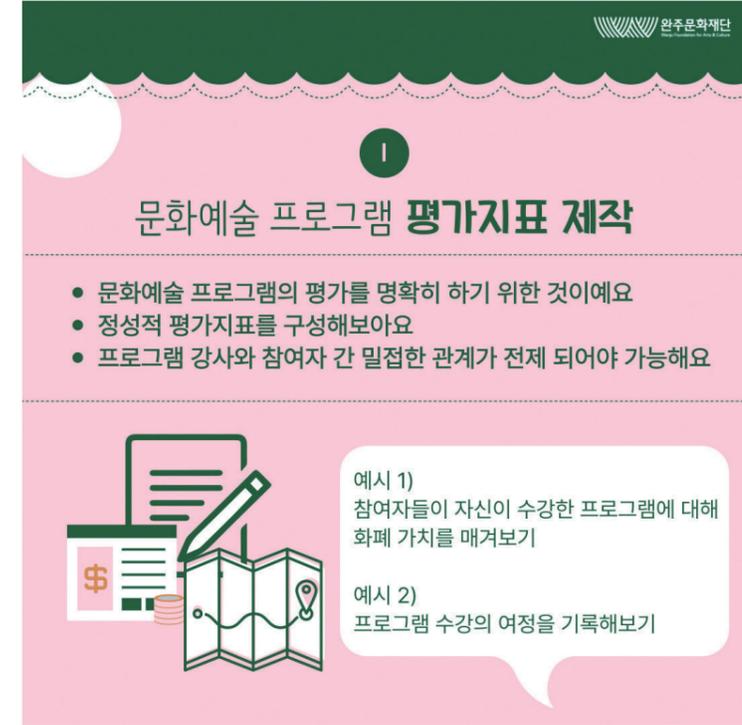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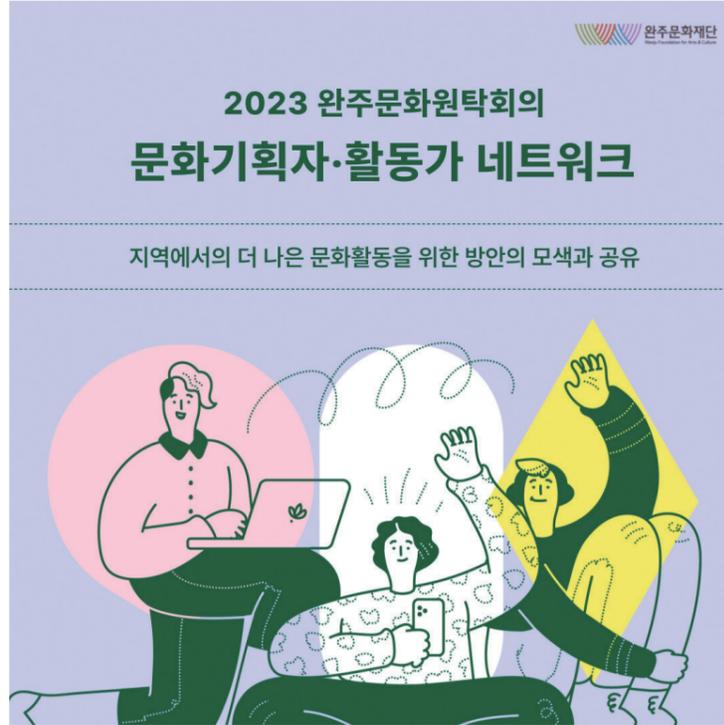
: 기획자·참여자 윤리에 대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제 도입
무정산 사업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시스템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캠페인, 모니터링제 등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완주군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 공동작업실 및 소룸 등 공유공간 조성을 통한 예술가, 공예가, 크리에이터들 간의 교류
지역예술가의 작품과 굿즈 등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쇼룸 조성
고향기부제 및 지역 특산품 등과 연계한 전시 및 수익 창출

문화기획자·활동가

_지역에서의 더 나은 문화활동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공유



안주문화재단

2 문화예술 지원 쿼터제 도입

-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자 신청 및 선정에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 지원자 선정에 신규 지원자를 일정 부분 할당하도록 해요
- 지원금 총액 제한 및 중복 선정 금지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시 1)
신규 지원자 25% 의무 선정 할당

예시 2)
완주군 내 문화예술 사업 선정시,
다른 군내 지원사업 선정 제한

안주문화재단

2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STEP
01



중복지원·수혜 방지

여러가지 지원사업의 연결성을 짚어보고 중복지원과 수혜를 막을 수 있어요

STEP
02



투명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수혜를 방지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자정 작용이 발휘될거예요

STEP
03



신규 도전자 발굴

프로그램 참여자가 문화활동가·기획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동력을 부여해요

안주문화재단

3 문화예술 창작자 교류지대 조성

- 완주군 내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마음껏 교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요
- 레지던스를 겸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어요



안주문화재단

4 문화예술 창작품 팝업스토어 겸 쇼룸 마련

- 문화예술 창작품을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해요
- 완주군의 관광상품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수수료와 홍보비 등을 책정해서 창작자들도 일정 부분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요
- 문화예술 수업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은 어떨까요?



문화예술 성평등

_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논의목적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실행

운영기간 2023. 3. ~ 12.

운영횟수 총 34회(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회의 총 8회,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총 24회, 실태조사 1회, 포럼 1회)

장 소 전라북도 일원

참여기관 총 10개 기관·대학·민간단체

(재)완주문화재단,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재)부안군문화재단,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전주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내 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운영
-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운영
-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협력 추진
- 포럼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진행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운영기간 2023.3~12.

운영횟수 8회

참여인원 총 76명(10개 기관·단체 관계자)

주요내용

-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관련 이슈 공유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협의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기 간 2023.7.12.(수)~10.18.(수) 14:00~17:00(3시간)

횟 수 24회

수강인원 9명

수료인원 7명

운영방법 대면·비대면 병행

주요내용

- [특강] : 지역문화예술 비평 활동, 성평등 관점에서의 콘텐츠 분석 특강(총 2회)
- [활동 및 멘토링] : 성인지 관점에서의 전북 14개 지자체 제작 콘텐츠·지역문화예술작품 분석 및 비평문 작성(그룹별 멘토링 12회, 비평문 멘토링 8회)
- [공유회] : 전북 14개 지자체 제작 콘텐츠 분석 결과 공유회, 지역문화예술작품 비평문 공유회(총 2회)
- [비평집 발간] : 2023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비평집 (1종)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과 모색'

일 시 2023.12.6.(수) 10:00~16:00

장 소 전주팔복예술공장

참여인원 26명

세부내용

분류	순	내용	발표	토론
포럼	1	문화예술기관의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의 현황	황지영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정정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	신인혜 (완주문화재단)
	3	전북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현황 및 방향성 제시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라운드 테이블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10개 기관·단체 라운드테이블 : 2021~2023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점검	구혜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김선정(전주문화재단), 신인혜(완주문화재단), 이윤정(익산문화관광재단), 봉두만(고창문화관광재단), 이주환(부안군문화재단), 진명숙(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 김은혜(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송원(JAWA), 최유정(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문화예술 성평등

_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헤엄칠 수 있는 힘

2023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생태계 조성사업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헤엄칠 수 있는 힘

10월 18일 @전주팔복예술공장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비평활동 : 영화·공연

권순지
'소희들'을 생각하며
영화 <다음소희>

원하지 않은 채로 수렁에 빠진 '소희들'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헤드폰, 그것이 단절시킨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헤드폰 바깥으로 말해져야 한다.

서서희
부역의 문을 열면 보이는
연극 <마음의 범죄>

<마음의 범죄>는 오직 '부역'이라는 공간에서만 진행된다. ... 부역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대하고 위로하는 공간으로 역할한다.

박옥태
조선최초 여성명창 진채선
영화 <도리화기>

영화에서 눈과 보따리에 주목했다. 보따리는 억압으로부터 해방광을 의미하고 하얀 눈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문화예술다리미

- 2021년부터 3년째 지속
-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 지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께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정

- 2023년 참여자 8인 (전라북도 도민)
- 성인지 관점을 짚어보는 강의 수강
-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 및 지자체 콘텐츠 모니터링
- 멘토와의 1:1 심화 글쓰기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비평활동 : 문학

김누리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어야 한다)
희곡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작가도 이 작업을 '창작'이 아닌 '기록'이라고 일컫는 게 아닐까. ...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 그 모든 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를 다른 현실로도 소환되어야만 할 테니까.

도인정
아니 에르노 → 신유진 → 독자D로 이어지다
신유진 번역가(작가 아니 에르노)

신유진이 독자 D에게 전달한 아니 에르노의 질문은 우리가 기억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비평활동 : 전시

박진아
우리는 지금, 미래를 가르는 치열한 전쟁중입니다
전시 <미래비평>: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작가의 기억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과거를 성찰하게 하고,
생태적 돌봄과 연결의 실을 엮어
도래할 미래가 현재에 있음을 사유하자.

이제는 숨이 찬 지구로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언젠가 오는 미래는 변화된 길이
된다.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가 실천적 지구에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전시 <미래비평>: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이은심
가까이 그리고 멀리
-점점 가까이 그리고 점점 멀리-
전시 <미래비평>: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세계인의 지구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지'와 '인간의 조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미술에서 더욱 확장된 생태 실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차유림
'공상의 길목에서
-뜨개질하는 작가'
전시 <미래비평>: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중
작품 <오션랜드>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예술계를 고민하는
전북권 10개 기관·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시작된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외에도
원탁회의, 포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예술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특강 : 김민조 비평가

성평등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특정 사상과 관점을
경유하는 렌즈로 비평하는 작업은
창작자(비평가)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비평은 외로운 작업입니다.
창작물에 대해 피드백을 하지만
자신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와
같은 프로그램이 소중한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문화예술 성평등

_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과 모색

2023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과 모색

12월 6일 10-12시
@전주팔복예술공장

- 주최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 주관 :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 협력 : 도내 6개 문화재단(전북,고창,부안,완주,익산,전주), 지식공동체지배배,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CHAPTER 01 문화예술기관의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의 현황

발표 : 황지영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 미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에 성평등 문제를 포함시키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직 신설
- 관계부처 합동,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마련
- 문화예술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실시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근거 마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문제를 비전에 포함하도록 함

! • 법령상의 한계, 2차 피해 등 보호조치의 어려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지자체는 단 1곳

•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사 부족

• 전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지속성, 통일성 담보하기 어려움

• 각 지역 문화재단 및 기관 등이 상위 기관을 보완해야 함

• 법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 필요

• 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

2023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CHAPTER 01 문화예술기관의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의 현황

발표 : 황지영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토론 : 정정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CHAPTER 02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의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발표 :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
토론 : 신인혜 (완주문화재단)

CHAPTER 03 전북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현황 및 방향성 제시

발표 :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토론 :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CHAPTER 01 문화예술기관의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의 현황

발표 : 정정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평등 환경 구축 제도화의 명암
- 문제의식 지속과 실천을 위한 표현의 중요성-

① 질문하기

- 성평등 생태계 구축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과제는 무엇인가?
- 예술인 권리 보장위원회에 신고된 성평등 주제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성, 법제도와와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② 체크 리스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 규정 :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등
-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 고려 필요 : 'peer review' 서로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창작 작업에 균형잡힌 관점을 주고받을 것

사회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의성 발전을 위해서
성평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과제

CHAPTER 02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의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발표 :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 현황 및 직원 218인 중 154인 인식 조사 진행

Q 기관 현황 조사

- 직원별 성별 분포
- 기관 내 성평등 기반 구축 현황
- 직원 성평등 인식 함양을 위한 시스템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인식 예산 확보 등)
- 지원사업을 위한 성평등 환경 기반 구축 (성평등 매뉴얼 · 제재조치, 심의위원 분포 등)

Q 직원 인식 조사

- 재단 내 성평등 문화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현황 및 방지 제도
- 성적 불쾌감에 대한 경험 및 기관 신뢰도
-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정도 등

! 결론 및 제언

1. 재단 직원과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희롱 · 성평등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2. 재단 내 수평적,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토대 조성
3. 지역 내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성평등 시스템에 대한 논의 구조 활성화
4. 전북 도내 6개 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지속

CHAPTER 03 전북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현황 및 방향성 제시
 발표 :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2018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내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2018)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적 실시(2019~)
 - 도내 8개 문화기관과 업무협약 체결(2021)
 - 도내 10개 문화기관과 업무협약 체결(2022~)
- 전북 도내 문화예술 관련 중간지원조직 : 정책연구, 실행사업 운영, 협력체계 구축, 정책포럼 등 활동영역 확대

! 조직경영에서 성평등 실현 위해 내부 구성원의 변화 필요

- : 의무교육 이수, 전문강사 교육, 담당부서의 관련정보 공유, 성평등 사업 안내와 성과공유회 참여 독려
- 중간지원조직 이해관계자를 분류, 이에 맞는 성평등 확산사업 실행 : 정책개발, 인식제고 캠페인, 학습조직 지원, 성평등 창작활동 지원, 관광콘텐츠 점검, 네트워크 강화 등

CHAPTER 02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의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토론 : 신인혜 (완주문화재단)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일 : 재단 안에서 보는 실태 조사

-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 여성 구성원들의 위치, 성평등 문화 정착에 대한 점검 필요
- 수직적인 구조에 의한 위계와 소통 채널의 부재로 인한 한계 확인,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청
- 지원사업 시스템에서의 성평등 관점 필요
-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성희롱 · 성폭력 교육 및 가해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좀 더 크고 작은 현장 안에서의 실천적인 작업이 필요

CHAPTER 03 전북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현황 및 방향성 제시
 발표 : 김미진(전북도인일보)

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구축, 무관심 극복과 적극성 과제

- 지난 5년간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대응 : 다소 소극적이며 전반적인 무관심이 퍼져있었음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업무 협약의 상세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여러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실태조사와 논의 구조를 통해 언론이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넓은 판을 만들어야 할 것
- 조례, 정책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성과 낚기를 요청
- 더 넓게 확산시키는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람

주민제안 원탁회의

_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메이커 공방 활성화 방안

논의목적

- 지역 주민, 예술인 중심의 지역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공간 운영 방안 도출

운영기간 2023. 3. ~ 5.

운영횟수 총 3회

장 소 완주군 일원

참여인원 예술인, 예술강사, 완주군민, 복합문화지구 누에 관계자 등 24명

주요내용

- 지역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바탕으로 한 복합 문화지구 누에 아트메이커 공방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주요 내용

- 아마추어 강사 및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규강좌 및 특별강좌 개설 활성화
- 기초-중급-고급으로 이어지는 체계화 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 동아리제 운영을 통한 아트메이커 공방 상시 운영 확대
-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등 홍보 채널 개선

공유·교류 원탁회의

_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일 시 2023. 12. 28.(목) 14:00~16:00

장 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참 여 자 총 10명(완주문화원탁회의 참여자,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

세부내용

순	분류	내용
1	참여자 교류	. 참석자 자기소개
2	원탁회의별 발제 및 자유토론 1	.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 문화예술현장에서 도출된 정책 및 활동 제안 - 발제 1 : 완주형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 / 전별(전스비주얼랩 대표) - 발제 2 :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제안 / 홍미진(림보책방X느림보식탁 대표) .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 장애인문화예술 협력사업의 의미, 향후 발전 방향 - 발제 1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그리고 매드프라이드 축제 / 김언경(아리아리 공동체 대표) - 발제 2 : 지역 장애인문화예술인의 활동 소개 / 이승철(예수재활원 원장)
3	휴식시간	. 휴식 시간
4	원탁회의별 발제 및 자유토론 2	.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 :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안에서 성평등 만들어가기 - 발제 1 : 전북 도내 6개 문화(관광)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 진명숙(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 발제 2 :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과감한 상상과 제안 /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5	원탁회의 평가	.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평가 및 2024년 활동제안

공유·교류 원탁회의

_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완주문화원탁회의 - 공유교류회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일시 2023.12.28(목) 14:00~16:00
장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완주문화원탁회의 - 공유교류회

장애인 문화예술

문화예술 성평등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문화기획자·활동가

완주문화원탁회의의 세 분야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호 교류와 활동 나눔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유교류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한 변화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완주문화원탁회의 - 공유교류회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완주형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
전별 (전스비주얼랩)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제안>
홍미진 (느림보식탁x림보책방)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 <완주군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 그리고 매드프라이드 축제>
김연경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지역 장애인문화예술인의 활동 소개>
이승철 (예수재활원)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 <전북 도내 6개 문화(관광)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과감한 상상과 제안>
송원 ((주)문화다양성 공존)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완주형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 전별 (전스비주얼랩)

행사형·강의형 문화 구성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지나오셨나요?"
"오늘 함께한 경험 어떠셨나요? 떠오르는 단어 3개를 적어주세요"
"오늘의 경험을 판단할 열마에 팔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전과 후의 나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오늘 함께한 경험으로 앞으로의 나는?"

정성적 평가지표가 필요한 이유

-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반성
- 입체적인 평가 가능 (형태소 분석, 인포그래픽 활용 등)
-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제안 홍미진 (느림보식탁x림보책방)

- 건강한 문화지원 생태계 조성
 - 금액별·기간별·연차별 기준을 활용한 쿠틀레 실시
 - 새로운 사업대상자 발굴 및 기회 부여를 위해, 중보 지원·중보 참여에 대한 기준 마련
- 무정산 방식에 대한 고민
 - 기획자·참여자 윤리에 관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제
 - 무정산 방식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책 구성
- 완주군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공간
 - 지역 예술가들이 상시적으로 교류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복합문화지구 누에 활용 등)
 - 작품, 기념품,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아트 스톱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

<p>완주군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 그리고 매드프라이드 축제 김연경 (문화공동체 아리아리)</p> <p>완주군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만나고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 -향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비장애인을 비롯, 더 많은 이가 참여하길 바란</p> <p>매드프라이드축제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자리 -퍼레이드-정신장애인 선언문 낭독-당사자 포럼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공연</p> 	<p>지역 장애인문화예술인의 활동 소개 이승철 (예수재활원)</p> <p>완주군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 -예수재활원 내 참여인원 9인, 전시작품 10점, 공연작품 5개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전시·소개하는 경험 -작가로서 스스로 인정받는 경험</p> <p>완주군장애인합창단 '꽃' -2023년 창단, 5개 기관, 단원 37인 -예수재활원 내 참여인원 11인 -서로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당사자들이 맞추어가는 하모니</p> 
---	--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송원 ((주)문화다양성 공존)

<p>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예술지원 해외사례 포럼 ·여성예술인 생애주기별 라운드 테이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원사업 연구분석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 작성 ·문화예술 성평등문화다양성 평가지표 개발 ·성차별 아카이브 마련 ·여성 50% 이상 포함한 심의위원회 도입 	<p>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예술인 대표자 양성 과정 ·여성 선배예술인 멘토링 ·해외 성평등 예술지원 사례·교류 프로그램 ·여성 소수 인력 분야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기획자 양성 교육 ·성평등 예술 프로젝트 개발 워크숍
<p>창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작품 성별영향 통계표 작성 ·성평등 우수작품 발굴 ·여성예술인 양육비 별도 지급 &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기금지원을 위한 다양성 확보 ·성평등 역량강화 위한 추가 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시 결정권자 성별 비율 제출 ·지역 교류형 여성예술제 & 성평등 문화예술축제 개최 ·문화다양성 복합예술공간 마련 	<p>함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이 반영된 고객들을 유치 ·성평등 관점에서의 관람 후기 플랫폼 제작 ·성평등 창작자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여성예술인 후원 캠페인 ·선배 여성예술인 멘토링 ·여성예술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전북 도내 6개 문화(관광)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기관 인식 조사
 - 전체 직원 중 여성이 많으나 고위직급에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단 내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
 - 성폭력·성희롱 사안 매뉴얼·담당자가 있는 곳은 50%에 그침
 - 보조사업 내 관련 사건 조치 여부가 부족한 경우 다수
- 직원 인식 조사
 - 재단 내부 의사 소통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높음
 - 성평등 문화에 대해 팀원급·단기계약직일 경우, 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음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평가를 내림
 -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 신뢰도는 남성·팀장급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실태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1. 재단 직원 · 지원사업 대상 성희롱 · 성평등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재단 내 수평적,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로 성평등 문화 정착하기 위한 토대 조성
3. 지역 내 성평등 위원회 설치 · 운영 통해 성평등 시스템 논의 구조 활성화
4. 전북 도내 6개 재단이 진행 중인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지속

완주문화원탁회의

2021년부터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완주문화원탁회의'는 문화예술현장 관계자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만나 완주군 문화예술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입니다.

2023년에는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 성평등, 장애인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완주문화원탁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하나의 완주를 위한 100개의 목소리

글 조은지

2023년 3월 17일, 완주문화원탁회의 일환으로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완주문화예술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2023 문화현답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완주군수, 군민,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종사자,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 86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군민과 현장의 의견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로 완주군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완주군의 정책 구상에 참여하고 실무자와 만날 수 있는 현장 중심, 군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말에서 주민간담회 자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민선 8기에 따른 군정 방향과 주요 계획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임동빈 문화역사과 과장이 ▲완주문화재단 ▲문화도시 지원 ▲삼례문화예술촌과 쉬어가삼[레:] ▲문화예술 단체 프로그램 운영 ▲완주 역사 재정립 등 크게 다섯 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한순철 관광체육과 과장이 발표에 나섰다. 완주군의 관광 발전 지수가 지난해 1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개소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주요 관광 인프라 확충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대회 지원 등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오늘의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다. 100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인당 100초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 미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정책제안서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의견 청취에 앞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이 솔직하게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조별로 구성된 테이블에 앉은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마이크가 돌아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하게 된 주민들은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준비해 온 제안을 말했다. 100초라는 시간 동안 간결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는 진중함이 느껴졌다.

주민 제안은 크게 <문화예술>, <역사문화>, <관광>, <체육>, <기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졌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공연장 등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71%로 높게 나왔는데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보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마을과 같은 작은 단위의 거주지역, 생활권역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욕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수의 의견을 차지한 문화예술 분야의 제안은 ‘문화예술 산업화’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문화예술 창업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지원부터 전문 컨설팅, 공간 지원까지 단계별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완주군이 문화예술 기업을 유치하는 등 문화예술산업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화예술인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의 강사로 및 문화기획자와 활동가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문화예술행정 전문화’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에 전문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삼례문화예술촌에 전시기획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예술인 지원’ 부분에서는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전문 예술인의 작업 공간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기관과 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곳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시설의 사업비 또한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 예술작품을 유치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 해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들을 수 있었다.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주의 한지가 복원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문화예술시설 정비’ 부분에서는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 설치, 가족 및 어린이 이용객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에 이어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지역 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봉동읍 구암리 경허대 선사 기록 및 안내문 설치, 경천면 봉수대·성곽 복원 및 기록, 삼례 동학운동과 근대역사 문화자원 보존·기록, 구 삼례양수장(현, 비비정)에 대한 역사 자료 제작·배포, 고산향교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주민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 중 ‘관광지 정비’와 관련한 제안 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시설 확충과 관광지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관광지 내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 설치, 구이호 둘레길과 소양 오성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 내 필수 시설 확충, 만경강변 산책로·자전거 도로 정비, 생태적 관점에서의 환경 조성 제안 등이 있었다.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만경강 랜드마크와 구이호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요청이 있는가 하면 상관저수지와 만덕산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오성한옥마을과 소양천, 만경강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과 마을별 강점을 살린 체험 특화 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분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주민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았다. 삼례 관광 활성화와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자는 제안 또한 많은 공감을 받았다. 지역 내 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관광두레 업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주요 관광지의 대중교통 노선과 운영을 확대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도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만경강의 철새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생태 보호’를 위한 제안도 등장하였다.

<체육>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체육 인프라 확충’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하게 나타났다.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문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권역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만경강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서 지역 둘레길 및 트레킹 코스 개발 등 활발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국비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길 바라는 제안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완주군 외곽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임신·출산 육아 등의 시기에 있는 노동자에게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등 완주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100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에 열띤 모습을 보였다. 평소 완주군의 군민으로서 숙고해 왔던 생각이 돋보였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해당 제안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진행했다. 수많은 제안에 대해 최대한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완주, 군민들이 주인인 완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더 나은 완주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2023 문화현답 :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열린 논의의 장이었다. 이날 나온 제안들은 앞으로의 완주군의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크나큰 바탕이 될 것이다.

완주문화예술 주민간담회

우리의 만남이 피워내는 장애문화예술의 꽃

글 조은지

2023년 12월의 첫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공동체의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서 진행된 이 날의 원탁회의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말이라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발걸음을 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수재활원의 이승철 원장, 정신재활시설 한사랑에서 일하며 문화공동체 아리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언경 대표, 완주군수어통역센터의 강지현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에서 활동하는 유영희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의 첫 번째 순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 서로’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나누는 것이었다. 해당 축제는 완주군에서 열린 첫 장애인기관·시설·단체 연합 문화예술축제였다. 몇 년간 이루어진 원탁회의의 여러 협력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행사였던 만큼 준비와 운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축제에서는 각 기관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 장애문화예술인이 창작한 작품 등을 각각 공연 상영 전시의 방식으로 소개했다. 다섯 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다섯 편의 영상 상영, 공예 회화 사진 문학 등 112점의 작품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총 89인의 장애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방문자를 포함하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로 만나고 소통하는 작지만 큰 자리였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각 기관 시설 단체의 진심 어린 마음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꼼꼼한 노력이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행사를 단순히 관람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를, 또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축제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획 의도가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되었으며, 실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유영희 회장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밝은 표정과 움직임은 물론이고, 행사 내내 ‘재미있어요’, ‘좋아요’라고 말하며 현장을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축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당사자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만, 몇몇 보호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외부활동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함께 즐기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쉬운 마음도 밝혔다. 유영희 회장은 이후 축제에서는 좀 더 당사자들을 기다려주고, 다른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며 바라봐 주는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김언경 대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경험을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이 작업한 결과물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예술인 혹은 작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존재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는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는 경험이 되었고, 작품 출품에 대한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만나며 장애인 스스로 다양성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으로 짚었다. 처음 이루어진 장애인 당사자들의 행사인 만큼 크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진 점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으며, 급하게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행사를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완주군수어통역센터 강지현 사무국장도 장애인이 문화예술작품 발표에 직접 참여하고 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진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벽이 허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축제를 위해 설치된 넓은 LED 화면은 수어통역 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다양한 시도

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문화공동체 아리아리가 출품한 영화 작품은 모니터를 통해 전시되는 대신 문화제 현장에서 LED 화면을 통해 상영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한 김언경 대표는 제작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을 큰 화면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관객들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작자들이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꼽혔다. 이승철 원장은 무대 사이즈와 공간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동선 조율이 어려웠다는 후기를 전했다. 외부에 무대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를 만들면서 실제 공연장에 비해 무대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이었다. 참석자들은 공연과 전시, 체험 부스 등 여러 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 휠체어 이동 동선과 관람 동선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언경 대표는 축제 후 전시된 작품이나 공연·상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적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역 안에서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말하며, 이를 위해 축제에서 소개한 작품들의 프로그램북 또는 도록을 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덧붙여 참여 주체의 확대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023년에는 원탁회의에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지만, 내년 축제에는 더 많은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 많은 장애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에 대해 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은 향후 행사 규모가 커지고 참여 주체가 늘어나더라도, 올해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을 편안하게 느끼고 장애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매거진 <서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매거진 발행은 2022년 원탁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사업으로 2023년 회의를 통해 제작 방향이 잡힌 바 있었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매거진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은 매월 1회, 마지막 주 수요일로 확정되었으며, 구성 콘텐츠는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후기와 작품 소개, 지역 장애인 지원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개,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각의 기관 시설 단체 공동체가 세부 아이টে임을 제안하고 원고 제작 일정 등을 조율하였다. 장애인문화예술매거진 <서로> 창간호는 2024년 1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진 이번 원탁회의는 지난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소회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축제를 다시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온 장애인문화예술매거진 <서로>의 창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기획의 자리가 된 것이다. 연말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더욱 풍성해질 2024년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문화기획자·활동가

더 깊고 더 넓게 : 문화기획·활동을 위한 성찰과 모색

글 조은지

지난 2023년 12월 18일 오전, 완주군청 옆 어울림 카페에서 문화기획자 활동가 네트워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백남경 작가,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스비주얼랩의 전별 대표, 지역에서 독립서점이자 문화공간인 느림보식탁×림보책방을 운영하는 홍미진 대표까지 3인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완주문화원탁회의를 통해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활동가들과 함께 더 나은 활동을 펼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은 그 모색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더하는 자리였다.

먼저 전별 대표는 소리점빵 김민경 대표, 엄마의 방학 김지영 대표, 위시아트랩 한송지 대표와 함께 논의한 ‘문화예술 분야 평가지표’에 대해 말했다. 지금까지 애매하게 정리되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정성적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구성 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화폐 가치를 매겨 보는 방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정을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는 기존에 프로그램 기획자 활동가 교육자 등이 진행하던 정성적 평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참여자가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경제적 가치로 문화예술 활동을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보려고 했다. 전별 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요구와 필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 또는 확대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평가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과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구성, 프린트·배포 작업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와 기획자 활동가 교육자 간의 신뢰를 꼽았다. 기존의 문답형 평가와 달리 참여자들이 자신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가치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백남경 작가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참여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완주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에 중복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참여 기회를 잃는 군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형식적인 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

느림보식탁×림보책방 홍미진 대표는 현장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이유를 짚었다. 문화도시 사업이 3년 차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험이 축적된 시기인 만큼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문화도시 사업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자체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예술 분야 창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느림보식탁×림보책방 홍미진 대표와 백남경 작가가 공유하였다. 김다운 활동가와 백남경 작가, 홍미진 대표가 함께한 소모임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로 논의를 정리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문화예술 지원 쿼터제 도입’이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정에 중복지원과 중복참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쿼터제 도입 논의는 과도한 중복지원과 중복참여를 막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주체가 전문성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홍미진 대표는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사업 운영 시 신규

주체선정 비율을 정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주체들의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지원 기관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 기획자나 활동가, 공동체가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 주체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확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지원사업은 활동의 지속성을 넘어 문화기획자, 활동가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쿼터제 도입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마련은 현장과 관계자들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홍미진 대표는 행정이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포럼이나 라운드 테이블 등 현재 문화예술 지원사업 체계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 관계자 중심의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두 번째 제안은 '문화예술 상품 제작자들의 교류 지대 조성'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용진읍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존재하지만, 자체 사업단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방 등의 시설이 있지만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활동가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인데, 지리적으로도 전주와 가까워 완주군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면적이 넓은 완주군의 지리적인 특성은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이용근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백남경 작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문화기획자 활동가, 예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레지던스, 공용 작업실 및 사무실 등을 겸하는 새로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제안은 '문화예술 창업가가 제품(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겸 쇼룸 조성'이었다. 팝업스토어 겸 쇼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기획자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이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이용하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수입구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직접 굿즈를 제작·판매한 경험이 있는 전별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며, 지역 안에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백남경 작가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의 전시와 판매를 담당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다. 홍미진 대표 역시 완주군에서

도 판매 공간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의 욕구는 높을 것이라며 삼례문화예술촌과 복합문화지구 누에 등 행정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의 확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기획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모인 이날의 회의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의견들이 오고 갔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판할 지점들을 짚어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기보다 완주문화예술 전반의 내일을 내다보는 관점을 통해 이러한 자리는 가능할 수 있었다. 더 나은, 더 깊고, 더 넓은 문화기획과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화예술 성평등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헤엄칠 수 있는 힘

글 조은지

2023년,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이 한창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완주, 고창, 부안, 익산, 전북, 전주)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가 함께 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시작된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는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지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께 비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시작되어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 8인은 모두 도내 거주자로, 3개월여간 함께 모여 성인지 관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지역의 문화예술작품 및 지자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지역 작품을 다시 보기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지표를 고민하고, 그룹별 논의와 글쓰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역문화예술작품 비평문을 완성해냈다.

가을별이 무르익는 지난 2023년 10월 1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문화예술다리미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공유회가 열렸다. 쉽지 않았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비평문을 통해 만난 이날의 공유회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에서 함께 한 이끄미들,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의 멘토들, 함께 사업을 추진한 열 개 기관·단체의 담당자, 특별 강연을 준비한 김민조 비평가 등 총 3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성평등한 문화예술 비평 활동을 위해 기꺼이 함께 걸어온 이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공유회의 진행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김은혜 멘토가 맡았다. 참여자들이 각각 15분씩 자신이 작성한 비평문을 공유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멘토, 기관·단체 담당자 등이 함께 비평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비평문 발표를 위해 앞에 선 참여자들은 다소 떨리고 긴장된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비평문을 읽고 비평 과정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에서는 부끄러운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비평문은 가제본 형태의 비평집으로 현장에서 나누어졌다. 적지 않은 양의 비평문을 발표라는 형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글로 쓴 내용에 대한 요약은 물론 강조할 점들을 짚어내었다. 여기에 더해 글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작품과 비평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깊은 이해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비평 분야는 장르를 중심으로 크게 전시, 연극·영화, 문학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사건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에서 창작 또는 전시·발표한 작품이라는 점이었다. 그 때문에 지역의 현안과 관점을 돌아보는 의미도 있었다. 또한 비평의 작품들이 여성 인물이 등장하거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는 사건 등을 소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평등 관점에서의 비평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러 작품에 대해 참여자들이 진행한 비평에는 다양한 시사점이 있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역사의 교차성, 당사자의 자기 말하기와 기억의 의미, 지역 노동 현장의 문제, 여성 인물의 재현, 인간의 마음속 상처와 불안 등 사회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기존의 주류적인,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비평에 대한 전복적인 시도였다.

먼저 전시 분야에서는 박진아, 이은심, 차유림 세 명의 참여자가 ‘이퀄리브리엄 :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 전시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했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각기 다른 지점들을 짚어낸 참여자들의 관점이 돋보였다. 박진아 참여자는 인간과 환경이라는 큰 주제를 여성주의적으로 관찰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고민점을 예리하게 짚어내었다. 그런가 하면 이은심 참여자는 오늘날의 생태계에 닥친 현실에 대한 고민을 섬세하게 다듬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차유림 참여자는 ‘이퀄리브리엄’에서 전시된 작품 중 물아냐 작가의 <오션 원더랜드>에 주목하며 작품의 재현성뿐만 아니라 작품이 소재로 삼은 뜨개질이 대표하는 여성적인 속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극·영화 분야에서 박옥태 참여자는 조선의 여성 명창으로 알려진 전북 고창 출신 진채선에 대한 실화를 다룬 작품, 영화 <도리화가>에 대한 비평을 진행했다. 그는 영화 줄거리와 인물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실제와 영화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한편 권순지 참여자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사회>에 대한 비평을 공유했다. 자신이 콜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영화 속에서 재현된 모습과 비교하며 젠더적 관점에서, 또 지역적 관점에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파악하였다. 연극 <마음의 범죄>를 비평한 서서희 참여자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통찰과 작중 '부엌'이 가지는 공간성에 대한 고찰을 나누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김누리 참여자가 한국전쟁 당시 임실군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생존자의 구술기록을 토대로 한 희곡 <배소고지 이야기>에 대한 비평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여성인물들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들, 인물 설정, 서사 부분에서 일부 아쉬운 점들을 짚어내었다. 도인정 참여자는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와 그를 한국에 소개하는 번역가 '신유진', 그리고 독자로서 자신이 연결되는 지점과 기억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보는 것은 '봄'으로써 곧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비평활동은 단순히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비평을 통해 작품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총총이 쌓여있던 벽을 해체한다. 그리고 기존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 쌓어나간다.

페미니즘, 성평등은 가부장제가 지속되어온 사회를 넘어선 시각과 상상력이 필요한 주제이다. 문화예술 비평문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다리미 활동의 목표였다.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마친 것에 대한 뿌듯함을 이야기했다.

참여자 중에는 지난 1, 2기를 수료하고 다시 3기에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처음 비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글을 써본 적이 없는 낯선과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 비평을 마주하며 느낀 감정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험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참여자들은 성평등이라는 렌즈로 지역을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해냈다. 저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끝까지 비평문을 완성한 참여자들의 끈기와 에너지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참여자들의 비평문 발표에 이어 특별한 시간이 진행되었다. 바로 김민조 비평 평가의 강의였다. 2021년과 2022년에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을 만나 강의를 진행했던 김민조 비평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활동에 대해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는 독자와 창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비평가의 고뇌를 이야기하면서 비평작업의 특성과 함께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비평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문화예술다리미 비평문들의 관점을 짚어보며 또 다른 시각에서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덕분에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참여자들의 비평문을 좀 더 깊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공유회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 6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비평문 발표부터 질의응답, 특강까지 모두가 몰입해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유회에서 참여자들이 발표한 비평문은 현장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탈고를 거쳐 비평집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12월에는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실천을 위한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올해의 과정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의 공유회는 문화예술다리미 3기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지만 또 다른 시작의 자리이기도 했다. 보다 성평등한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동료들 만나고 방법을 찾고자 했던 지난 3개월을 통해 이제 참여자들은 어렵겠지만 선명하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헤엄쳐나갈 수 있는 시작. 문화예술다리미 3기의 공유회가 비추어낸 모습이었다.

문화예술 성평등

지금의 발걸음으로 만드는 내일의 우리

글 조은지

지난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 전주 팔복예술공장 A동 다목적실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다.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가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과 모색’이라는 주제 속에 열린 이날 포럼에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성평등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협력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며 포럼이 시작되었다. 홍교훈 교수(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문화콘텐츠 학과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포럼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화예술기관의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황지영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황지영 위원은 그간 문화예술기관들이 추진한 성평등 환경 구축 정책과 그 배경을 발표했다. 2018년 미투(Me too)로 문화예술계 성평등 이슈가 떠오른 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평등 문제를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조직을 신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양성평등 정책, 여성 폭력 방지 정책 등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분야별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각 성평등이 포함된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2차 피해 등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 예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보완과 예산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사건의 발생 이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를 이해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사 인력이 부족해 장르별,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황지영 위원은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를 통해 모든 미투 과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련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과 관계 기관 등이 상위 기관과 법을 보완하는 제도와 사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는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의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으로 전북대학교 고고 문화인류학과(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진명숙 교수가 진행했다. 진명숙 교수는 전라북도 6개 문화재단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가 분석과 도표 등의 자료로 제시되었는데 재단의 성평등 기반 구축 현황과 직원들의 성평등 인식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재단의 성평등 기반 구축 현황 부분에서는 직원 성평등 인식 함양을 위한 시스템, 재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성평등 환경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직급, 고용 형태, 근무 기간 등을 토대로 재단 내 성평등 문화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현황, 성적 불쾌감에 대한 경험,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도내 6개 문화재단 직원 구성에서는 높은 직급일수록 성별 불균형이 두드러졌으며 성평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와 기구가 없는 재단 또한 50%에 가까웠다. 재단 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가장 많았고,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평등 예방 교육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하지만 재단 내의 성희롱 성평등 방지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많았다.

진명숙 교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및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단 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성평등 시스템에 대한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고, 6개 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전라북도 성평등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논의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전북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평등 현황 및 방향성 제시’라는 주제로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행)이 나섰다. 조사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연구과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관광 콘텐츠 쪽으로 성평등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이후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 예술인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안에서 후속 절차 진행을 시도했음을 설명하며,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권 문화재단이 함께 재단 내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부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했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문화재단과 기관·단체 등 총 10개 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문화예술계 성평등 생태계 조성을 이루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토대로 구혜경 본부장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제안을 정리했다. 조직 내부의 구성원이 변화하기 위해 조직경영에서의 성평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단 등 중간 지원조직과 함께 일하는 주체들의 성격과 활동 등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성평등 확산 사업을 구상·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발제자 세 명의 발표가 끝나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우선 정정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성평등 환경 구축 제도화의 명암 - 문제의식 지속과 실천을 위한 표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준비했다. 그는 성평등 생태계 구축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과제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신고된 성평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가 시사하는 점과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연계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했다.

더불어 성평등 환경의 제도화가 성평등 법제들과 어떻게 연결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정정숙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 규정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기에 성평등을 누구도 억눌리지 않는 문화에

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두 번째 토론자는 완주문화재단 신인혜 팀원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북 도내 문화재단의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재단 구성원의 입장에서 발언하였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여성 구성원들의 위치와 성평등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밝혔다. 수평적 운영을 지향하지만 태생적으로 수직적 위계가 있는 조직의 특성에 의한 한계에 공감하며 수평적 소통 채널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민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인혜 팀원은 재단 지원사업에서의 성평등 환경 기반 조사 결과 중 심의위원의 성별 차 존재 부분을 짚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성의 심의위원이 60%를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시스템 내 성평등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가해자 제재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제재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 작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북도민일보의 김미진 기자는 ‘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구축, 무관심 극복과 적극성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구혜경 본부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성평등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투 이후 시일이 지나며 사회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활동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주체들이 맺은 성평등 업무협약의 상세한 내용이 지역에 알려져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진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단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논의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조례나 정책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전하였다.

여섯 명의 발제와 토론이 숨 가쁘게 이어진 후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문화재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단 종사자가 이 결과를 보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에 전라북도문화 관광 재단의 성평등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해자 제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가해자 및 가해자 조력자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두 시간을 넘기는 뜨거운 발표와 토론 속에서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당면한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인식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완주문화원탁회의

2023
완주문화원탁회의 기록

공유·교류 원탁회의
_ 이어지는 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힘

공유·교류 원탁회의

이어지는 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힘

글 조은지

2023년 완주문화원탁회의에 함께한 활동가들이 공유·교류 원탁회의를 위해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 모였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날의 자리는 주제별로 움직이는 원탁회의 안의 여러 활동가가 서로 간의 활동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공유·교류 원탁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현장 중심의 정책·사업 제안,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에서 준비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소개와 의미,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와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위한 제안이었다.

먼저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중 문화예술 평가지표 분과에서 논의한 <완주형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에 대해 전스비주얼랩 전별 대표가 발표를 진행했다.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시도는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반성에서 이루어졌다.

정성적 평가지표는 ‘행사형’과 ‘강의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오기 위해 참여자가 겪었던 여정, 참여한 내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는 과정, 참여자의 변화를 기록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치를 참여자는 물론 사업 담당자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별 대표는 항목별로 키워드 분석, 질적 응답 분석 등을 통해 입체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 과정이 기획자와 제안자, 정책 담당자가 문화예술 활동의 과정에 주목하고, 개선하거나 확대할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발표에 이은 자유토론 시간에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전북대학교 진명숙 교수는 정성적 평가 지표의 아이디어가 참신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전별 대표는 현재 만들어진 평가지표는 큰 틀에서 작성된 것으로 세세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세부 질문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실제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의 문화예술창업 분과에서는 느림보식탁x림보책방 흥미진 대표가 <문화예술 창업 관련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그룹 내에서 문화예술 창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중 지역 내 문화예술 창업 생태계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창업가들이 창업 후에도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며,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문화기획자 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서의 쿼터제를 제안했다. 금액별, 기간별, 연차별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쿼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줄이고 대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과 신규 기획자 활동가의 활동 기회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완주군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정산 방식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무정산 방식이 행정 절차의 간소화, 활동 집중도의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현장에서 드러나는 일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무정산 방식을 없애기보다는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완주군 예술가를 위한 공유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화예술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하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은 교류와 소통이 창작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군으로 이를 위한 공간 마련은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이 작업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룸 및 아트숍의 역할을 겸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 이어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김언경 대표가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 그리고 매드프라이드 축제’ 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한 사업과 참여자들의 소감을 소개했다. 그는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에 참여한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작가’, ‘감독’으로 불려진 것에 뿌듯해했다며, 장애인이 주인공인 축제인 만큼 직접 기획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사자의 의견도 전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장애인 시설이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공동체와 연계해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방안 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후에는 2023년 2회를 맞이한 완주형 매드프라이드 축제 소개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이후 완주에서 처음 진행한 축제로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축제에서는 퍼레이드와 함께 정신장애인 선언문 낭독,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공연과 당사자 포럼 등이 진행되었다. 김언경 대표는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에서도 퍼레이드 등 여러 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연결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은 <지역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소개>라는 주제로 예수 재활원에서 활동하는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예수재활원에서는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서로’에서 풍물, 합창, 피아노 연주, 작품 전시 등에 아홉 명의 장애 문화예술인이 참여 했다. 참여자들은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 강했다’며 자신감이 커졌다는 후기를 남겼다.

축제와 함께 완주군 내 여러 시설 단체 등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완주군장애인합창단-꽃’에 대해서는 2023년 창단 이후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완주문화재단과 함께한 ‘무장애탐사단’ 활동도 소개하였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완주군의 문화시설을 배리어프리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역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승철 원장은 발표의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하기 쉬운 공간과 장소가 존재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강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승철 원장은 이러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문화다양성 공감 송원 대표는 매드프라이드 축제, 장애인문화 예술축제를 온라인으로 확산시켜 완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알리고 완주를 방문하는 계기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에서는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진명숙 교수의 <전북 도내 6개 문화(관광)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실태조사는 기관 조사와 직원 인식조사로 구성되었다. 기관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전체 직원 분포는 여성이 많지만 고위직급은 남성 비율이 높다는 점,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있었다. 성희롱 성폭력 교육은 모든 재단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을 다루는 매뉴얼과 업무 담당자가 있는 곳은 50%뿐이었으며 사건 처리 규정이 없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원사업 내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심의위원 구성은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직원의 66%가 참여한 직원 인식조사에서는 재단 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소통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주로 팀원급의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으며 단기 계약직의 경우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재단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예방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은 점수를 주었다.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규정(매뉴얼) 인식도는 높지 않았으며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회사의 대처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 및 팀장급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팀원급 이하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주)문화다양성 공존의 송원 대표는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과감한 상상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다. 그는 정책 창작 향유 교육의 4개 항목으로 제안을 구분하였다. 정책에 있어서는 성평등 예술지원 해외사례 포럼, 여성 생애주기별 라운드 테이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의 지원사업 연구 분석,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 제작, 문화예술 성평등 문화다양성 평가표 개발, 성차별 아카이브 마련, 여성 비율 50% 이상을 명문화한 심의위원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창작에 있어서는 지역 작품의 성별 영향 통계표 작성, 성평등 우수작품 발굴, 여성예술인 양육비 별도 지급, 경력 단절 여성 지원사업, 기금지원을 위한 다양성 확보 근거 제시,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원, 지원사업 참여시 결정권자 성별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지역 교류형 여성 예술제 개최, 성평등 문화예술축제 개최, 문화다양성

복합예술공간 마련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교육에서는 여성예술인 대표자 양성 과정, 해외 성평등 예술지원 사례 교류 프로그램, 여성 선배예술인 멘토링, 여성 소수 인력 분야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기획자 양성 교육, 성평등 예술 프로젝트 개발 워크숍 등을 제안하였다. 향유자의 관점에서는 다양성이 반영된 고객들을 유치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관람 후기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 등을 이야기했고, 그 외에 성평등 창작자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와 여성 예술인 후원 캠페인, 여성예술인 네트워크 행사 등에 대한 바람도 드러냈다.

전스비주얼랩 전별 대표는 전북 도내 6개 문화재단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냈다. 문화예술사업 담당자들이 경험하는 성평등하지 못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확대를 위한 재단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소망했다.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제안을 두고 흥미진 대표는 좁은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예상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동안 참여자들은 열띤 대화를 이어 나갔다. 구체적인 현실을 알고 제안에 대해 함께 상상하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점점 폭이 넓어졌다. 그 안에서 이어져 있는 서로의 끈을 느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공유하는 짝 찬 자리였다. 이날의 교류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완주군 문화예술 현장에서 연결과 환대를 만들어가는 바탕으로 계속될 것이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완주형 정성적 평가 문항 마련

작성자 전별

1. 제안자

: 김민경(소리점빵), 김지영(엄마의방학), 전별(전스비쥬얼랩), 한송지(위시아트랩)

2. 취지와 배경

기존 문화예술 평가 방식 및 지표에 대한 반성

- 만족도 조사, 참여자 평가가 대부분 형식적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짐
-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설문 내용은 대부분 비슷.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평가지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평가지표 필요

3. 내용

1) 완주형 정성적 평가 질문지

정성적 평가 문항들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알 수 있으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완주의 특성과 현대인의 생활 스타일을 고려하여 새롭게 질문을 구성하고, 일부 문항에서는 주관적 만족도를 기회비용으로 환원시켜 수치화를 시도해 보았다.

행사형 ver.1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지나오셨나요?
 - 1-1. 교통편
 - 1-2. 당신이 해내야 했던 일
2. 오늘 함께한 경험 어떠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3개를 적어주세요.
3. 오늘의 경험을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00원 왜냐하면)

강의형 ver.1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지나오셨나요?
 - 1-1. 교통편
 - 1-2. 당신이 해내야 했던 일
2. 오늘 함께한 경험 어떠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3개를 적어주세요.
3. 오늘의 경험을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00원 왜냐하면)
4.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전과 후의 나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5. 오늘 함께한 경험으로 앞으로의 나는?

2) 문항 설명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기 위해 어떤 여정을 지나오셨나요?

1-1. 교통편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지역을 왕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노력에 대한 정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볼 수 있다.

1-2. 당신이 해내야 했던 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민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소중한,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조사된 결과에 따라 기회비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2. 오늘 함께한 경험 어떠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3개를 적어주세요.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이나 중요한 상황 등을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주요 단어 3개를 적게 하여 평가지 작성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했다. 기획자는 수집된 단어의 내용과 횟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오늘의 경험을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만족도, 행복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문항이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다. 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그 값이 매우 낮다. 완주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이 많고,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지불하는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제공하는 가치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문항을 통해 정리한 기회비용, 주관적인 만족도, 행복도를 종합하여 이용한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의 가격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참여인원 등 정량적 숫자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아니라 실제 참여자가 인식하는 가치로 사업이 평가되길 바란다.

4.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전과 후의 나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5. 오늘 함께한 경험으로 앞으로의 나는?

기존의 정성적 평가 문항을 보완하여 만들었다.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분석해봄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교육에 대한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3) 활용방안

가. 형태소 분석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답변들을 정리할 때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단어들을 모아 설문지 분석

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문자의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그림과 도표 등의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다.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소임을 가지고 평가 진행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문화예술창업 관련 정책 제안

—
작성자 홍미진

1. 제안자

: 김다은(문화활동가), 백남경(쓰임), 홍미진(느림보식탁X림보책방)

2. 취지와 배경

- 설계·운영되는 사업 수는 많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
- 검증된 주체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맥락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과정이 중요함

3. 내용

건강한 문화지원 생태계 조성 → 금액별·기간별·연차별 쿼터제

- 새로운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쿼터제 필요
(예) 연간 1천만 원 이내, 3년마다 사업지원을 쉬는 안식년제 등
- 쿼터제 도입에 앞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필요 : 예산과 공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주민·관련 종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운영 방식 변화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무정산 방식에 대한 고민 → 기획자·참여자 캠페인·모니터링제

- 무정산 방식의 경우 서류가 간편화 됨으로써 활동가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하지만 무정산 방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무정산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사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모니터링단 운영, 기획자·참여자 교육,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캠페인 진행 등 다각도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주민들 스스로 변화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완주군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공간

-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복합문화지구 누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이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 → 예술 특화 도서관, 아트페어(예술제), 예술가들만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선진정보 교류 등
- 예술가·공예가·크리에이터의 작품들과 기념품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아트 쇼룸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특산품 등과도 연계하여 전시 및 수익 창출 가능

주민제안 원탁회의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메이커 공방 활성화 방안

—
작성자 김보미

1. 제안자

: 강봉석, 김종우, 김보미, 박동순, 백남경, 이태승, 조운성, 황경희, 황세화

2. 취지와 배경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접근성 강화

- 사람들이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
-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문화예술기관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접근성 강화

복합문화지구 누에의 단점

- 갖추어진 시설이나 공간에 비해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주민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한 정규, 일반 프로그램이 부족함

3. 내용

아마추어 강사 및 다양한 분야 강사 D/B구축

- 일반강좌, 전문강좌, 특강 등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강좌가 개설 된다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아마추어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누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동아리제 운영

- 아트메이커 공방이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가 직접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규강좌, 특별강좌 개설

- 특별강좌 외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정규강좌 개설 필요 정기적으로 강좌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방문율 및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음
- 정기강좌가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등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음

홈페이지 개선

-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개선 필요
-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강사 등록 페이지에 경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함 (현재 : 경력증명서 위주 / 개선방향 : 포트폴리오, 단체·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4. 참고사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 경기도, 도자문화재단 산하 기관으로 운영
- 교육실 형태가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가장 유사함(목공실, 도예실, 금속실, 유리실)
- 대관료가 종일 5,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오퍼레이터(전문인력)가 상주하면서 교육기자재 관리·사용 설명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용산공예관

- 홈페이지 구성이 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교육강좌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강좌가 일일체험, 정규강좌, 특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강좌를 선택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음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1993년 가나자와시에서 다이와방직공장(1919년 건축)에 20억엔을 투자하여 조성
- ‘누구든,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컨셉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불이 밝혀진 시민의 예술공간’으로 유명, 8시간에 100엔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미술, 연극, 문화 3개 분야에 ‘시민 디렉터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행 사 명 2023 문화현답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일 시 2023. 3. 17.(금) 14:00~15:30

장 소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관

참 석 자 완주군수, 군민,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종사자
완주군·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

참석인원 86명(완주군수, 완주군민 65명, 완주군·완주문화재단 관계자 : 20명)

주민의견 총 64건(문화예술 24, 역사문화 6, 관광(생태) 24, 체육 8, 기타 2)

내 용

- 완주군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추진 계획 공유
-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주민,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주민제안의견

1) 분야별 주민 제안 주요 내용

분야	주제	제안 내용	
문화 예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예술 산업화	· 문화예술 산업 지원 방안 마련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 문화예술인 인건비 현실화	
	문화예술행정 전문화	·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 · 문화예술사업 기획 시 전문예술인 참여 확대	
	예술인 지원	· 전문예술인·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문화예술 향유		· 문화예술기관시설 및 프로그램 예산 확대
			· 전문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	· 완주 한지 복원 및 활성화	
문화예술시설 정비	· 안전시설 확충		
역사 문화	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	· 지역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기록	
		· 문화재 관리 체계화	
관광	관광지 정비	· 관광시설 확충 · 관광지 환경 조성	
	관광자원 개발	·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체험특화마을 조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축제 주민 참여 확대 ·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두레 선정 기업 연계·지원 · 기업가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지원계획 마련	
	교통 인프라 구축	· 주요관광지 및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생태 보호	· 만경강 철새 보호 방안 마련	
체육	체육 인프라 확충	·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조성 · 대회 유치 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조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추진(국비)	
기타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 완주군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근무환경 개선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완주만의 정책 도입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 문화예술

■ 문화예술

순	주제	제안 내용(제안 인원 수)	주요 키워드
1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간 조성(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연시설 구축 . 지역 내 작은전시관 조성 . 관광지를 연계한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 거리 조성 (미술관 거리 등)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충 . 문화예술 발표 공간(전시장, 공연장 등) 확충 . 마을 단위 문화예술 공유공간 조성 . 삼례읍 영화관 건립 	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예술 마을 공간 소규모 공간 접근성 강화
2	문화예술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산업 지원 방안 마련(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기업 창업 지원 활성화 . 문화예술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문화예술 창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지원 등 기반 조성 	공간활성화 유희공간 민간기업 양성 단계별 지원
3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인건비 현실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 문화기획자·활동가 인건비 현실화 	강사료, 기획비 활동비, 현실화
4	문화예술행정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정(기획)의 전문성 강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례문화예술촌 전시기획 전문인력 배치 필요 . 문화예술기획에 전문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기획 전문성 전문인력
5	예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인·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 전문예술인 작업 공간 조성(유희공간 활용 등) 	창작지원, 활동지원 창작공간, 유희공간
6	문화예술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기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예산 확대 . 문화예술기관·시설의 사업비 확대 	마을 생활문화예술 사업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전문예술작품 유치 .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의 다양화(도예 등) 	문화예술콘텐츠 다양화 공간활성화
7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한지 복원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완주한지
8	문화예술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시설 안전시설 확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 설치 . 가족 이용객, 어린이를 위한 도로변 속도제한 등 	안전 야간 어린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제안이 전체 22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았음. 특히 **전문예술인·생활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공연장 등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71%로 지역 내 전시장·공연장 시설의 확충과 기존 시설의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리적으로 넓고, 이동이 쉽지 않은 완주의 지리적 특성상 멀리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역(마을) 내에서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시설)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음**

문화예술 산업화

문화예술 산업화 부문에서 두드러진 점은 문화예술 창업 및 기반 조성 부문임.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창업 지원부터 전문 컨설팅, 공간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문화예술(체육)인의 인건비 현실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인상, 공동체·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인건비 책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강사료의 경우 불가인상률과 강의 시간 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업무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내에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예술행정(기획)의 전문화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기획, 무대감독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전문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됨

예술인 지원

지역 내 **전문예술인의 작업 공간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조성 방안이 제안되었음. 지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지원체계가 미비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2021.12.23. 제정)'**와 연계하여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향유 부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다양화'로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됨
또한 전주 등 주변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전시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지역 특화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과제로는 **한지의 발상지 완주의 전통과 우수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완주한지 복원 및 전승,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문화예술시설 정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문화예술시설에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야간 이용객, 아동·어린이 등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함**. 야간 조명 설치, 차량 속도 제한 등 안전 체계 도입이 시급함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 역시 문화예술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 확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완주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완주군립미술관, 만경강 작은 미술관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 지역주민의 삶이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 그림동아리 회원들도 전시가 가능한 작은 전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과 노력의 결실을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관이 없어
카페를 대관해야만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 지역에서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상설 시설이 구축된다면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군민이나 동아리가 활동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나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을 신청해서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곳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유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활동이나 작업과 창업은 전혀 다른 역량을 요구합니다.
문화예술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자원, 역량에 맞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에서 문화예술, 체육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강사비가 정말 너무 적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과는 달리 강사비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실질 물가에 맞는 강사비 책정이 필요합니다."

" 마을에서 주민분들을 위해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입니다.
완주의 경우 마을로 들어갈수록 어르신, 주민들이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하는 등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지역에도 오랫동안 작업하며 충분히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전시 기획의 경우 작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작품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만큼 삼례문화예술촌에 전시기획 전문인력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 지역예술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창의적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예술인의 기획력이 더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그림을 그리고 기타를 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마을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군이 되는 것처럼,
작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마을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완주가 생활문화예술 분야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향유 측면에서 수준 높은 전시회나 음악회,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전주나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지역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먼 지역에 있는 영화관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영화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완주는 한지의 고장이었습니다. 세계가 한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한지'를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자원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 역사문화

" 완주에 문화재가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산향교에 관리원 사택이 있는데, 향교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비비정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삼례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이 만들어진 과정과
안자리 우물 등을 사진으로라도 남겨서 역사자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 경천면 봉수대와 성곽이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망가져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자원인데 복원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원이
어렵다면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두면 어떨까 합니다."

" 봉동읍 구암리는 거북바위가 있고 예로부터 큰 인물이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허대선사 탄생기가 있는데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처남, 매부 사이라는 것이
최근 알려졌으며, 동학운동에도 경허선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과 함께 경허선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 역사문화

주제	제안 내용(인원 수)	주요 키워드
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	○ 지역 역사문화 보존 및 기록(4) · 동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경허대선사 기록·안내문 설치(봉동읍 구암리) · 경천면 봉수대 및 성곽 복원 및 기록 · 삼례 근대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인식 확산 · 삼례 동학운동(삼례 봉기) 기록 및 인식 확산	지역역사문화 기록 보존 복원 인식확산
	○ 지역 내 문화재 관리(2) · 국가등록문화재인 완주 구 삼례양수장(비비정) 역사 자료 제작 및 배포 · 고산 향교 등 지역 내 문화재 체계적 관리	문화재 기록 보존

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

역사문화 분야의 경우 **지역별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하고 보존·기록하여 지역 내 인식을 확산**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지역 내 완주학 정립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완주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보존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기록 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인식확산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 관광

■ 관광

순	주제	제안 내용(인원 수)	주요 키워드
1	관광지 정비	○ 관광시설 확충(4) · 관광지 내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 설치 · 구이호 들레길 필수시설(공중화장실 등) 설치 ·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확충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 관광지 환경 조성(5) · 만경강 상류 고산천 산책로 이용객을 위한 징검다리 설치 · 만경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 · 만경강변 친환경 미화물 구축 · 삼례 비비셋강 환경 정비 · 삼례문화예술촌 조경 개선	만경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2	관광자원개발	○ 지역 특화 관광지 조성(5) · 만경강 랜드마크 개발 · 구이호 관광지 개발 · 상관저수지 - 만덕산 관광벨트화 사업 · 오성한옥마을 - 소양천 - 만경강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완주군 체험 특화마을 조성	만경강 관광코스 마을관광 야간시설
3	협력체계구축	○ 관광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4) · 지역축제 기획·운영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삼례관광활성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 지역 내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소통 연계 협의체
4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3) ·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관광두레 업체와의 연계·지원 확대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및 지원계획 마련	로컬 민간 지원체계
5	교통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확대(1) ·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노선 및 운영 횟수 확대	대중교통 버스
6	생태 보호	○ 만경강 생태 보호(2) · 만경강변 철새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만경강 철새보호

관광지 정비

관광지 내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카페 등 매장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 필수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관광지 정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으로는 **관광지 환경 조성 및 시설 정비 등이 있었음**. **관광지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생태적 관점의 환경 미화, 야간 방문객을 위한 조명 설치, 콘텐츠 개발 등이** 관광지 정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됨

관광자원 개발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가 필수적임. **만경강 개발 관련해서는 만경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축이 제안되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관광벨트화 사업, 특화마을 조성 등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협력체계 구축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 기획·운영 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내용 공유 등 적극적 소통**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서 지역주민이 제외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됨**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민, 기업(업체), 공공이 연계·협력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관**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역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 세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음

관광 산업 활성화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관광두레 등 관련 업체와의 연계·협력, 지역 내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주요한 내용으로 꼽혔음. 관광두레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가형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위케이션', '성지코스'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교통 인프라 구축

완주의 경우 대중교통이 적어 차량이 없는 경우 관광지 방문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함

생태 보호

차량 이동의 증가, 낚시,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인해 만경강을 찾아오는 철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체류 지역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경강 생태 보존을 위한 철새 보호 제도 마련이 강조됨

" 오성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카페에 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을 할 때 해설사에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머무는 곳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경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경강 했을 때 떠오르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만경강’ 했을 때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축제가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주민들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 지역에 문화예술기관·시설, 관광시설 등 다양한 곳이 있지만, 민간의 경우 함께 연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관광두레 업체가 완주군에 7개가 있습니다. 2022년에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완주를 관광 메카로 만들기 위해 관광두레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완주군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면 문화예술, 관광에서 소외된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완주군 지원을 받지 못해 정부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기업가형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위케이션’, ‘성지코스’ 구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문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받아들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과 연계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

" 관광지의 경우 이동수단이 중요한데 차량이 없는 경우 교통이 불편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의 다양화, 운영횟수의 증가 등이 필요합니다."

" 완주 해전뜰에서 고산 어우보까지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경강변의 낚시꾼들과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인해 철새들이 머물지 못하는 만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 체육

" 주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수영장, 파크 골프장 등)이 필요합니다."

" 도민체전, 만경강 대회, 생강골 대회 등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장소(시설)가 없습니다."

" 체육 관련 전문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비사업, 전국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 국비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전북 내에서는 고창, 부안, 익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스포츠 마케팅, 관광 관련해서 대회 유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육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체육

순	주제	제안 내용(제안 인원 수)	주요 키워드
1	체육 인프라 확충	○ 전문체육시설 조성(2) - 대회 유치가 가능한 볼링장 건립 -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전문체육시설 정비·확충	전문체육 대회유치
		○ 생활체육시설 조성(4) -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수영장, 파크골프장 등) - 만경강변 생활체육시설 조성 - 이서 지역 둘레길 및 트레킹 코스 개발	생활체육 지역별 권역별
2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추진(1) - 국비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제안	국비사업 스포츠관광 대회유치

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이 전체 제안 7건 중 6건으로 응답 비율로는 85.7%를 기록함. 체육 분야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짐작할 수 있음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의 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전국대회 개최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아 시설 정비 및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완주군 내 생활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생활권역, 읍·면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수영장, 파크골프장, 트레킹 코스 등 지역적·인구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다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해 보임

스포츠 산업 활성화

스포츠 산업은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체육인, 관계자, 관람객 등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효과는 스포츠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음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가 선정되었음. 스포츠 자원과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에 나서셨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 기타의견

" 완주군 외곽, 충남 인접 지역인 운주면은 이동과 교류가 어려워 지역적 소외감(고립감)이 있습니다. 외곽지역 주민을 위한 순회버스 운영 등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완주만의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만삭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주 1회 재택근무 등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기타의견

순	주제	제안 내용(제안 인원 수)	주요 키워드
1	대중교통 확충	○ 완주군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충 - 완주군 외곽지역 거주 주민의 이동 편의 확충	외곽지역 대중교통
2	근무환경 개선	○ 임신·출산·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완주형 정책 마련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육아와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완주형 정책 도입	저출산 인구소멸 근무환경 개선 정책지원

'완주군민 100인에게 듣다'
_주민 제안 보고서

완주군민의 목소리
부록 : 주민 제안 의견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문화 예술	문화예술 및 체육 강사 등 처우 개선	문화예술, 체육 부분 강사비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 불가상승률, 실질 물가에 상승에 맞춘 강사비 책정 필요
	지역 문화기획자 · 활동가들의 처우 개선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로 하고 있음.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하는 등의 처우가 개선되면 지역에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함. 특히 완주의 경우 마을 어르신, 주민 중에서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을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필요	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군민이나 예술동아리들이 활동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평생학습이나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등을 신청해서 활동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음. 마을 곳곳에 문화 예술인, 문화예술동아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완주군에 유희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많은데, 그 공간들이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조성되면 좋겠음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지원 등 기반 필요	공모사업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유희공간, 공간 활성화 사업 등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특히 공간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완주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군내에 역량있는 사업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함
	문화예술 창업, 산업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필요	문화예술활동·작업과 문화예술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이 다름.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 자원, 역량에 맞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함. 단계별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필요
	타지역에서 문화예술 사업장 이전 시 지원 혜택 마련 및 문화예술기업 창업 지원 활성화	민간 차원의 콘텐츠 업체가 많아진다면, 완주 홍보 및 인구유치,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됨. 지속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적 부담과 사업 기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계 필요
	문화예술 행정 기획에 현장 예술인 참여기회 확대	지역 예술가들은 창의적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많은 기획을 하고 있음. 기관에서 하는 사업 기획에 실질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삼례문화예술촌 전시기획을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지역에도 오랜 작업을 통해 충분히 훌륭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음. 외부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기획한 경우, 작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작품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 유치	완주가 생활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지만 수준 높은 미술전시회, 음악회,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음.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함
	문화예술쉼터 내지는 공연장 건립	체육·관광 분야는 놀이·운동 장소가 많지만 문화예술분야는 모든 군민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수시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화예술 전시·공연 공간 구축	완주에 제대로 된 전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 좋은 미술관과 전시장 등이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완주군립미술관, 미술관 거리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예: 만경강변 작은 미술관 거리 조성)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문화 예술	삼례읍 영화관 건립	고령자가 많아 영화관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음. 문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
	지역 내 소규모 무대(공연시설) 구축	삼례 비비정 및 문화마을(새참수레 앞), 상관 신리역 광장 및 편백숲, 고산 세심정, 구이 모악산 입구, 소양 한옥마을, 이서 지사울 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시설이 구축된다면,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는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함. 만경강변, 상장기공원 무대 등 기존의 무대들도 재정비 필요
	지역 내 작은 전시관 조성 필요	지역의 그림동아리 회원들도 전시가 가능한 작은 전시관이 있으면 좋겠음. 배움과 노력의 결실을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관이 없어 카페를 대관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음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기관시설 사업비확대	문화재단 사업비가 줄어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사업인 '문화이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도 거의 못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사업비 추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음. 마을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군이 되는 것처럼, 작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자라난다고 생각함. 문화이장이나 완주 한 달 살기처럼 주민이, 마을이 만들어가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음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 확대	자치센터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실정임
	복합문화지구 누에 안전 체계 구축	어린이, 가족 등 보행자 위험도가 높은 만큼 속도제한 구역 등 차량 통행 제한 필요,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로등 추가 설치(야간 범죄 위험률 높음), 내부 안내판 재정비 등 시설 정비 필요
	장애예술인의 처우 개선	그림과 기타를 치는 장애인이 있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완주한지 복원 및 활성화	완주는 한지의 고장이었음. 세계가 한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한지'를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함
	도예활성화를 위한 제안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도예실 활성화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음. 도예를 배우고 싶지만 장소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주민들이 많음
	역사 문화	경천면 봉수대 복원 및 역사문화 기록
고산향교 문화재 관리 필요		고산향교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함. 관리원 사택 등 정비 필요
봉동읍 구암리 경허선사 탄생기 안내문 설치		봉동읍 구암리는 거북바위가 있고, 큰 인물이 난다는 전설이 있음. 이곳에는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대선사 탄생기가 있음. 전봉준 장군에게 경허선사는 처남 매부 사이라는 것이 최근 알려졌으며, 동학운동에 있어서 경허대선사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함. 경허선사는 꼭 기억되어야 할 완주의 보물이라고 생각함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역사 문화	비비정 정수장 관련 역사 자료 제작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안에는 근대건축 문화재 221호 정수장이 있음. 정수장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내용과 안자리 우물 등을 사진으로라도 남겨서 역사자료로 만들면 좋겠음
	삼례 동학운동 기록 및 인식확산 노력 필요	동학운동에서 삼례 봉기가 주요한 역사적 사실임. 이에 대한 내용을 지역민,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 운영 필요
	삼례 역사문화 자원 활용 확대	삼례문화예술촌 인근 정미소, 우석대학교 옆 친일파 농장 자리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존 및 기록 필요
관광	지역 축제 기획·운영 시 주민 참여 확대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4월 초에 진행되지만, 구이면 주민들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음. 행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해주면 좋겠음
	대둔산 축제 운영 시기 조절 요청	운주면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6월 초 대둔산 축제 개최를 안내 받음. 불거리, 먹거리, 주민참여, 지속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음
	지역 내 관광,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	지역에 문화예술기관시설, 관광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는데 민간의 경우 이들과 연계하거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음
	기업가형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및 지원 계획 필요	기존에 활동하던 기업들이 완주군 지원이 거의 없어 정부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 기업가형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워케이션', '플랫폼', '성지 코스' 구축 등을 하고 있음.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들과 연계가 필요함
	관광두레 업체 지원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관광두레를 지원하고 있음. 완주군 관광을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완주군 지원은 아예 없고, 신청을 해도 다른 업체 위주로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해서 군의 도움 없이, 군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시너지가 생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완주군 관광에 더 큰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관광두레 지원 확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두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완주군에 7개가 있음(봉동, 비봉, 동상, 고산 등). 2022년에 선발되었고, 2026년까지 계속 지원 예정임. 완주를 관광 메카로 만들기 위해 관광두레 업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주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음. 완주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함. 서로 협력해 잘 성장해 간다면 문화예술, 관광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관광안내소 (해설사의 집) 설치	관광해설사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해설사를 배치하기 전에 해설사의 집을 먼저 마련해 줬으면 함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관광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대안 모색 필요	삼례에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증가할 때 먹거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먹거리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음
	구이호 관광지 개발	경주 '동궁과 월지'를 벤치마킹해 구이호에 조명, 데크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및 명소 개발
	구이호 둘레길 시설 보완 및 야간 개장 추진 등을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10월에 구이호 둘레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중.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이 매우 부족함.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처럼 조명, 다리, 데크 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함
	만경강 랜드 마크 구축	만경강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때 대표 콘텐츠 필요
	만경강 상류 고삼세심보 뒤편 고산천에 징검다리 설치	세심보 주면은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된 아름다운 산책길이지만, 산책 코스가 너무 길어 가다가 길을 되돌아 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징검다리가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산책길을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음. 고산면 오산리 835-1과 삼기리 945-1 부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만경강 완공 및 축제 활성화	만경강이 제2의 한강이 되면 좋겠음
	만경강변 꾸미기	만경강 둔치와 강변에 벚꽃 뿐만이 아니라 무궁화를 비롯한 꽃과 나무를 심어 친환경 미화들을 구축하면 좋겠음
	만경강으로 진입하는 자전거 도로 정비	만경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불편하고, 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비비정 대관수로가 생기기 전 수로역할을 했던 비비갯강의 환경 정비 필요	비비갯강에 방치된 유해 수초를 제거하고, 갯강의 수로 역사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삼례문화예술촌 울타리에 탱자나무, 무궁화꽃조성	일본인들은 쌀을 수탈해 놓고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음. 삼례는 동학 2차 봉기가 일어난 곳으로 조선인들이 다시 몰려와 쌀을 가져갈까봐 탱자나무를 심었다고 함. 조선시대의 옛 모습을 다시 찾아주면 좋겠음. 탱자나무가 자라면 호랑나비가 생기고, 가을엔 탱자가 익어서 아름다움. 가시가 있다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잘 다듬으면 예쁘게 관리도 가능함. 여름에 삼례문화예술촌에 꽃이 없음. 나라꽃 무궁화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음
	상관저수지 개발 및 용정한옥마을, 만덕산 정수사 관광 벨트화	상관저수지, 달래봉 용정한옥마을, 정수사, 만덕산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힐링 코스 개발(트레킹코스 활용 및 꽃길 조성사업, 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중화장실 필요	오성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카페에 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음. 관광해설사에게 문의하기도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답변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함. 관광객이 오는 곳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소양천을 만경강 사업과 연계, 자전거 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 조성	소양은 BTS 관광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소양천에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관련 시설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음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관광	완주군 체험특화마을 조성 (한방테마파크)	구이 안덕마을은 2021, 2023년 한국 웰니스 관광지(한방분야)로 선정됨. 현재 한증막, 한의원, 숙박시설, 세미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한방테마파크 마을을 조성하여 완주군 대표 체험 관광촌이 되었으면 함
	주요 관광지 대중교통 확충	관광지의 경우 이동수단이 중요한데, 차량이 없는 경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찾아오기 어려움. 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의 다양화, 운영횟수의 증가 등이 필요함
생태	만경강 철새 보호	만경강에 각종 철새가 많이 오는데 차량 및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함. 철새를 보호하고, 머무는 시기에 사람과 차량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게 지푸라기 등으로라도 보호벽을 세웠으면 함
	만경강 철새 보호	완주 해전뜰에서 고산 어우보까지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 페러글라이딩과 낚시꾼들로 인해 철새들이 머물지 못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체육	고산지역 수영장 조성	주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영장 조성 필요 (비용, 고산, 동상면민 등 이용 가능)
	만경강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만경강 둔치에 실내 승마연습장, 승마길 등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음. 현재 체육은 전문가 육성보다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실내에서 실외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더 실효성 있을 것. 이러한 체육 분야로 승마를 추천. 강변을 달리는 승마가 이루어진다면, 완주의 대표 체육, 관광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만덕산, 응암마을 근린공원 조성	만덕산 응암마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하천 자전거 도로도 함께 조성되면 좋겠음
	볼링장 건립	도민체전, 만경강 대회, 생강골 대회 등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장소(시설)가 없어 아쉬움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보완	체육 관련 전문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도 열악한 상황임. 국비 사업 및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보완 필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유치	국비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전북 내에서는 고창, 부안, 전북, 익산 네 군데 지역에서 진행 중. 국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대회 유치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육 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축산과학원 앞산 둘레길 및 트레킹코스 개발	이서면은 혁신도시와 농촌 마을이 공존하는 지역이지만, 주민과 정부 입주 기관 직원 등이 여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음. 축산과학원 앞산에서 원금평 마을, 신정마을,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경관 좋은 장소들을 이용한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면, 혁신도시 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영장, 파크골프장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필요

분야	제안 내용	제안 이유
	운주면 순회버스 운행	완주군 외곽, 충남 인접지역인 운주면은 지역적 소외감이 있음. 운주면의 특이성을 감안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
기타	완주 공무원 등 임신, 출산,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완주만의 정책 도입.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 임신 및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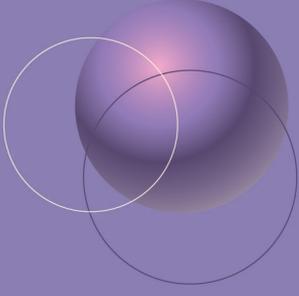
발행인 유희태
발행처 (재)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3. 12

총괄 정철우
책임 송은정
기획 정책기획팀 이은경, 신인혜
진행 정책기획팀 신인혜
기록 조은지
디자인 디자인시선 이지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www.wfac.or.kr

© 조은지, 완주문화재단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주문화원탁회의 : 문화예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
WANJUGUN